

5월3일(월)/사도행전20:7~12

제목: 기적은 교회를 위한 배려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7절) 즉 주일에 애찬식을 가지기 위해서 모였을 때 바울의 설교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이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방의 환기를 위해 벽에 뚫어 놓은 작은 창문에 걸터앉아 졸고 있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9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자 바울은 침착하게 회중들을 진정시킨 후 유두고의 몸을 꺼안았다. 그는 이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청년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다(10절). 그리고 청년은 살아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12절). “사람들이 ... 위로를 받았다” 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의 목적은 그 청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박해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격려와 확신을 갖게 해 준 사건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은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크나 큰 믿음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기적은 그 당시자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에서 행해진다.

5월4일(화)/사도행전20:13~16

제목: 하나님과 단들이 걸어봅시다.

바울은 걸어서 앓소로 갔다(13절). 앓소에서 그는 그의 일행들을 만난 후 배에 승선하였다(14절). 그리고 그 배는 미둘레네를 거쳐서 기오와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였다(15절). 바울이 앓소에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에베소는 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에베소는 바울이 각별한 애정을 쏟은 부은 곳이지만 그는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기오에서 사모로 향해하는 직선 항로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앓소까지 걸어서 갔을까?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앓소를 향했다. 32km나 되는 그 거리를 도보로 홀로 걸어서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마 그는 앞으로 닥쳐올 날을 위하여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는 홀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는 일행들과 여행을 즐기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도 가끔은 복잡한 일상을 떠나 하나님과 단들이서 걷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란을 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5월5일(수)/사도행전20:17~35 (1)

제목: 사람에게는 불이 있어야 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17절). 고별 설교의 내용은 권면과 더불어 자기 변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행한 사역을 요약하였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목회하였으며 공중집회 때나 개인 가정을 심방할 때나 쉬지 않고 복음의 중심 내용인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고 하였다(18~21절). 그는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달릴 것을 말하였다. 그 달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24절). 그는 또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달릴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달릴 때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24절). 그는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숨을 거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처럼 살았다. 사람에게에는 이런 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정열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달려야 한다. 우리는 걷고 있는가? 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빈둥거리고 있는가? 정열과 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불을 가지고 살되 그 불이 자기 개인의 행복과 번영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불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5월6일(목)/사도행전20:17~35 (2)

제목: 말씀 자체가 지켜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지하였다(25절).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위해 수고해 줄 것을 장로들에게 당부하였다(28절).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에 장래 일을 예견하였다. 그는 에베소 교회가 장차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예견했다(29절). 사나운 이리란 거짓된 교리로 무장한 이단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다. 그는 또 에베소 교회 내부의 적이 생길 것에 대해서도 암시하였다. 교회 내 장차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즉 교묘하게 복음을 곡해하는 거짓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30절).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가 장차 내.외부의 적들에게 시달리겠지만 그들의 안전을 사람이 아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32절)에 부탁한다고 하였다. 교회를 지키는데 있어서 바울은 사람이 근본적인 방어책이 되지 못함을 알았다. 그래서 안전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하였다. 이 위험하고 험악한 세대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 은혜의 말씀을 잘 심어 놓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을 보호한다.

5월7일(금)/사도행전20:36~38

제목: 아름다운 이별식을 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마친 뒤 장로들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36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별에 대한 애절함과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있다. 이렇게 기도한 후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통곡하며 입을 맞추었다(37절). 이 말은 이별의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서 격정에 찬 감정으로 격렬하게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는 뜻이다. 장로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참으로 보기 드문 광경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장로들을 더 사무치게 하였다(38절). 장로들은 바울을 항구까지 전송하였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 작별 내용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간의 목회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도 언젠가 헤어질 때도 이런 아쉬움과 애절함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장차 이런 가슴 찡한 이별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목회자와 교인이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받쳐 서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장차 아름답고 가슴 찡한 이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